

## 실�크로드의 유목민 복식

### 강사 소개



강사: **김용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명예교수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아시아의 수발양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명예교수로 강릉한복문화창작소 기획을 맡고 있으며, 사)중앙아시아학회 회장과 사)한복문화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93년 7월 실�크로드 탐사 이후 실�크로드 출토복식, 한국복식과 유라시아복식의 교류 및 영향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쿠차의 복식」, 「新疆의 古代 出土服飾에 관한 연구」, 「투르판의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신출토 자료에 나타난 소그드 복식」,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복식연구」, 「복탁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 「알타이출토 고대 유목민 복식연구」등 20편의 논문과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실�크로드 3천년전』,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실�크로드연구사전 -동부: 중국신장』, 『실�크로드의 복식과 동서 문화교역』에 집필자로 참여하였다.

### 강의 요약

복식은 인류의 생활양식과 생산활동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으며, 각 민족의 역사, 자연환경, 생활방식, 종교 그리고 그들의 심미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목민이 역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략 기원전 1천 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되며, 스키타이(Scythians)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집단이 기원전 7세기 경에 러시아 남부 초원에 최초의 유목국가를 세웠다. 유목민족은 역사라고 하는 경사와 사회라고 하는 위사에 의해 직조된 독자적인 생활문화를 형성하며, 유목민은 생산수단과 생활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복식양식을 바꾸지 않는다. 초원지대는 마치 벨트와 같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고, 계절적 이동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던 유목민들이 살았으며, 그들은 종족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생활양식과 풍습 등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유목민 복식의 특징은 변발(辮髮),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바지와 좌임장포(左衽長袍), 긴 장화, 가죽 벨트와 작은 주머니 등이다.